



아산사회복지재단은 2017년부터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에 역점을 두어왔다. 경기도 의정부에서 중고물품 재활용매장을 운영하는 '쉼스토리'는 아산재단의 지원에 힘입어 발달장애인 12명을 고용해 자립을 돕고 있다. 앞줄 왼쪽 첫 번째가 김경호 대표다.

발달장애인, 서비스산업에 진출하다

글 최윤아 작가 / 사진 송은지 더프레임스튜디오

“쉼스토리에서 나왔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아파트. 발달장애인 박서현(24) 씨가 미소 띤 얼굴로 초인종을 눌렀다. 현관문이 열리자 박 씨는 미리 준비한 빈 상자에 기증 물품을 차곡차곡 옮겨 담았다. 스티머리미와 스탠드, 액자와 옷가지들을 담으니 어른 목까지 오는 큰 상자가 순식간에 가득 찼다.

“기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장에 한 번 오세요. 좋은 물건이 많아요.”

현관을 나서던 박 씨가 기증자에게 말했다. 이날 쉼스토리에 물건 3백여 점을 기증한 김수미(39·가명) 씨는 “버리기는 아깝고, 두자니 공간만 차지하던 물건을 어떻게 처리하나 고민하던 중에 의정부 지역 맘카페를 통해 ‘쉼스토리’에 대해 알게 됐다”며 “전화만 하면 직접 와서 물건을 가져가니 편하고, 안 쓰는 물건을 공짜로 처분할 수 있는데다 발달장애인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해서 기증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박 씨가 의정부의 아파트 두 곳을 돌며 기증받은 물건 1천여 점은 트럭에 실려 의정부시

용현동 숯스토리 본부로 운반된 후 기본 세척을 거쳐 매장에 진열됐다. 능숙하게 박스를 나르던 박 씨는 “하나도 힘들지 않고 오히려 재밌다”고 말했다.

숯스토리는 사회적협동조합 ‘희망을심는나무’가 운영하는 리사이클 매장이다. 지역사회로부터 기증받은 중고 물건을 재판매해 수익을 낸다. 이 사업 모델은 목회자이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9년 동안 운영해온 김경호(43) 대표가 고안했다. 발달장애인 일자리의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였다.

“정부는 생긴 지 2~3년이 지난 직업재활시설에만 지원금을 줍니다. 그 시간을 견디고 생존하는 일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선풐 뜻 직업재활시설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드물죠. 그러니 일자리는 늘지 않고, 성인 발달장애인의 대다수가 일할 곳을 찾지 못합니다.”

“아산재단의 지원은 우리에게 구명조끼”

김경호 대표는 별도의 정부 지원금 없이도 자립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연구하다 ‘리사이클’에 주목했다. 미국의 굿윌(GoodWill) 재단과 영국의 브리티시 하트(British heart) 재단이 리사이클 매장을 통해 사회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걸 보고 힌트를 얻었다.

“리사이클 사업은 중고 물건을 기증받아 세척, 분류해 판매하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가요. 자연히 많은 발달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죠. 또 각 지역에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일자리를 창출할 잠재력이 큼니다.”

김경호 대표는 숯스토리 1호점을 의정부시 민락동에 열었다. 의정부에 거주하는 성인 발달장애인은 약 1천 명으로 추산되지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단 한 곳(정원 30명)일 정도로 열악했기 때문이다. 2017년 1월 법인을 설립한 김 대표는 과거 몸담았던 서울시민교회의 지원을 받아 의정부 경전철 송산역 근처에 2층, 100평 규모 매장을 마련했다. 인테리어를 하고 카드 결제기 등을 구입하니 법인 통장에 남은 돈은 단 5만8천 원. 기증품을 운반할 트럭도, 기증품 수거함도 마련 못 했는데 돈이 바닥을 보였다. 그때 김 대표의 머릿속에 아산사회복지재단의 발달장애 지원사업이 떠올랐다. 과거 서울 광진구에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운영



매장 1층의 계산대와 2층 서가에서 고우현(25·위) 씨, 김비전(26·아래 앞) · 홍영호(20) 씨가 물건 값을 계산하고, 책을 정리하는 모습.

한 김 대표는 아산재단의 발달장애 지원사업을 알고 있었다. 설립 2~3년이 지나 실적이 있어야만 지원하는 다른 재단과 달리 아산재단은 신규 법인이라도 취지가 좋고 사업성을 갖췄다면 과격적으로 지원하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김경호 대표는 그 길로 아산재단에 사업 신청서를 제출했다. 아산재단은 1·2차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현장실사, 기관장 면접 등을 거쳐 숯스토리에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1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김 대표는 “표류할 뻔한 사업을 구원해줬다는 점에서 아산재단의 지원은 우리에게 ‘구명조끼’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숯스토리는 아산재단의 지원을 받아 1톤 트럭과 수거함 50개 등 하드웨어를 마련했다. 초반에는 고전을 면치 못했다. 물건을 기증하겠다고 나서는 단체와 개인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박서현(왼쪽) 씨 등 희망을심는나무 직원들이 기증함에서 기부 물품을 수거하고 있다.

당초 김 대표는 학교와 교회, 지역 내 기업에 수거함 50개를 설치해 기증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렸지만 현실은 상상과는 너무 달랐다. 의정부의 초중고교를 찾아가 기증품 수거함 설치를 부탁했지만 모두 미온적이었다. 어렵게 학교 관계자를 만나 숲스토리의 취지를 설명해도 허락하지 않았다. 기증품을 관리할 책임자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결국 공립특수학교인 송민학교만 수거함 설치를 허락했다.

차가웠던 지역사회 반응

의정부 지역 교회에 수거함을 설치하려던 계획도 진척되지 않았다. 의정부 교회 10곳 중 9곳은 자체적으로 바자회를 열었기 때문에 신도들이 숲스토리에 기증품을 보내는 상황을 마뜩찮아 했다. 기대를 걸었던 의류기업마저 기증을 꺼렸다. 숲스토리는 의류기업이 처분하는 옷을 기증받아 재판매해 수익을 올릴 계획이었으나 대부분의 기업이 리사이클 매장에서 제품을 판매할 경우 브랜드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양질의 기증품 확보가 사업의 성패와 직결되는 리사이클 사업인데 벽에 부딪혔다.

김경호 대표는 돌파구를 찾기 시작했다. 타깃을 대형 의류기업에서 중소 인터넷쇼핑몰로 바꿨다. 물류 창고가 없거나 비좁아 재고 물건을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중소 쇼핑몰은 재고 물건을 기부할지도 모른다는 점을 노렸다. 그날부터 김 대표는 퇴근을 반납하고 저녁마다 중소 쇼핑몰에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다. 700여

통의 전화 끝에 드디어 재고를 기증하겠다는 쇼핑몰이 나타났다. 숲스토리의 취지에 공감한 쇼핑몰 대표는 원가 1천만 원에 달하는 옷 수백 벌을 무상 기증했다. 썰렁했던 매장이 채워지기 시작했다.

홍보에도 박차를 가했다. 숲스토리는 아산재단의 지원금으로 홍보 스티커를 제작해 의정부 지역 아파트단지 10곳의 엘리베이터 거울에 부착했다. 동시에 주요 포털 사이트에 검색 광고도 시작했다. 조금씩 반응이 오기 시작했다. 지역 맘카페에 소문이 나고, KBS와 CBS 등 미디어에 노출되면서 전국에서 기증품을 제공하겠다는 연락이 왔다. 김 대표는 직접 트럭을 몰고 기증품을 받으러 다녔다. 아산재단의 지원금으로 2017년 8월 마련한 트럭은 8개월여 만에 1만2천km를 뛰었다.

양질의 기증품이 확보되자 손님도 늘었다. 처음에는 “죽은 사람이 입던 옷을 파는지 알게 뭐냐”며 발길을 돌리는 손님이 꽤 있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곳이라고 입소문이 났다. 특히 의정부에 사는 미군과 외국인근로자가 단골 손님이 됐다. 현재 숲스토리에는 하루 평균 150명의 손님이 방문하고 이 가운데 80~100명이 물건을 구매한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서 왔다는 한 방문객은 “우리는 좋은 물건을 싸게 사서 이득이고, 발달장애인은 일할 수 있어 이득이지 않느냐?”며 “이런 게 바로 윈윈(Win win)이다”고 했다. 김양선(75·가명) 씨는 “좋은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어 거의 매일 들른다”며 “일하는 직원이 발달장애인인지 모를 정도로 서비스가 좋고, 물건도 훌륭하다”고 했다.

숲스토리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직원들도 변하기 시작했다. 김미영(24·가명) 씨는 화장을 시작했다. 이곳에서 일하기 전 양말 공장에서 일한 김 씨는 외모에 신경을 쓰기는커녕 머리조차 자주 감지 않아 기름진 머리로 출근하기 일쑤였다. 그러나 매장에서 손님을 응대하면서 외모를 가꾸기 시작했다. 김 씨는 “양말 공장에서 일할 땐 먼지가 많고 재미도 없었는데 여긴 백배는 더 재미있다”며 “매장에 옷을 진열하고, 계산하는 일이 좋다”고 했다.

임규민(23) 씨는 사회성이 부족 늘었다. 비장애인·장애인 통합고등학교를 다닌 임씨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다. 내성적이어서 처음에는 직원들과도 어색하게 지냈다. 그러나 일한 지 1년



의정부시 용현동에 자리한 희망을심는나무 물류장에서 직원들이 지역주민들에게 기증받아 분류한 물품에 가격표를 붙이고 있다.

이 때가면서 눈에 띄게 달라졌다. 손님들의 질문에 상냥하게 답하고, 일에 서툰 직원도 적극적으로 돕는다. 임 씨는 “힘쓰는 일을 좋아해 기증품을 운반하는 일이 잘 맞는다”며 “며칠 전 월급을 모아 부모님께 밥을 사드렸는데 너무 좋아하셨다고”고 말했다.

“발달장애인이 사업 주체인 점이 고무적”


숲스토리의 팀원(직원)은 2020년 5월 현재 23명이다. 이중 발달장애인은 12명으로, 이들은 하루 4시간씩 주 5일 일하고 약 100만 원의 월급을 받는다(퇴직금 포함한 연봉은 1,300만 원선). 비장애인 직원 11명 중에는 새터민 2명, 60세 이상 고령 직원 2명이 포함돼 있다.

숲스토리는 매월 2만5천여 점의 기증품을 수거하는데 의류가 70%, 도서 10%, 소형 가전·유아용품 등의 생활용품이 20%를 차지한다. 2019년 3월 경기도 포천에 2호점을 오픈한 데 이어 올해 초 서울 노원구 등에 3호점을 개설하려 했으나 코로나19로 매출이 대폭 줄면서 계획을 미뤘다.

이 사업의 컨설팅을 맡은 이봉주 아산재단 사회복지자문위

원장(서울대 사회과학대학장)은 “발달장애인이 사업의 결실을 일반적으로 제공받는 수혜자가 아니라 비장애인과 대등한 조합원으로 참여한다는 점, 단순 임가공 업무를 주로 했던 그들이 서비스 산업에 진출했다는 점에서 이 사업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숲스토리가 외국의 리사이클 운동만큼 성과를 내려면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지역사회의 호응이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업 주체가 전화 700여 통을 돌릴 정도로 열성적이고, 지역 맘카페를 통해 빠르게 입소문이 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예상보다 빨리 자리를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희망을심는나무는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에 위치한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2017년 1월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고, 같은 해 2월 의정부에 첫 번째 매장을 열었다. 현재 김경호 대표를 포함해 총 11명의 비장애인과 12명의 발달장애인이 일하고 있다. 아산재단은 2017년 1년차 사업부터 2019년 3년차 사업까지 총 3억 원을 지원했다. 

※발달장애인들의 동의를 얻은 뒤 사진을 촬영했습니다.